화인웹테크

장태수 후원자를 만나다

글: 조윤숙 간사(아가페문화재단)

오랜만에 미세먼지가 걷히고 어느덧 초록이 무성해진 나무들과 맑은 하늘이 펼쳐진 날, 장태수 후원자님을 만났습니다. 장태수 후원자님의 여유있고 넉넉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1994년입니다. 강동구 명일동으로 이사하면서 이웃으로 계시던 유성귀 장로님 내외분을 만나고 그분들의 믿음생활과 삶을 보며 명성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거의 처음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5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을 한 후 제 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저를 '가장 낮은 자리로 까지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 도와주는 이도 없고, 돈도 없고, 오직 주님만 믿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7년을 기도했는데 우연히 후배를 통해 현재의 회사를 극적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인수할 시점에는 생산단가가 저렴한 중국 쪽으로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을 때라 거래처가 줄어들고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막막했지만 기도를 통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 화인웹테크는 어떤 기업인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상품, 제품들도 이름이 있지요. 화인웹테크는 제품에 브랜

드명을 인쇄하는 라벨 생산 전문기업입니다. 화인웹테크에서 생산하는 라벨의 품목이 지금은 약 3천여 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흔하고 친숙하게 사용하는 세제류 및 바디용품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 많은 제품들의 라벨을 생산하고 있지요. 그것은 단순히 라벨 인쇄가 아닌 브랜드, 그 제품의 제2의 광고효과를 창출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힘든 부분과 감사한 것 한가지씩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사직원 전도가 힘들어요. 교회에 등록하면 100% 상여금 지급을 약속을 했는데도 피곤해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되구요. 휴일에 모처럼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야 하고 쉬기도 해야할 테니까요.

감사한 점은 지난 17년 동안 매년 주님께서 성장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을 때도 늘 기도하며 방문하는데 그래서인지 신규거래처가 매년 10%~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름을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기업에서도 저희를 찾아와 라벨 생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나누는 삶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화인웹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직원들에게 상여금 400%씩 지급하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직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화인웹테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직원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성장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이번에 한국 전통음악 판소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음반인 판소리 『갈릴리예수』 음반에 후원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목사님 설교말씀 중에, '뉴욕에 가면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오페라를 매일 공연하는데 한국 기독교 130년사에서 한국적인 색깔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없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출애굽기의 극적이고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음악과 함께 한국적 오페라나 뮤지컬 등 공연으로 제작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창극, 판소리 등을 통해 성경 속 복음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고 있던 중에 좋은 기회가 왔던 거지요.

이번에 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국악CD 뿐만 아니라 천지창조, 출애굽기 같은 이야기들이 창극으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씨채널방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전체 국민의 25%인 만큼 방송의 내용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통해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송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복음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개인적인 것과 사업적인 것 모두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저와 가족, 직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기업들이 잘 경영되고 믿음 속에서 살았으면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진벨재단과 함께 북한의 결핵환자를 후원하는 일과 선교사님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 국악찬양 CD 등의 활동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장태수 후원자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로서 축복의 통로가 어떤 것인지를 느끼며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